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7권 3호, 2011, 한국보육지원학회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7, No. 3, 2011, pp.21~42  
Korean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사회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f Child's Perceived Parent-child Relationship, Ego-resilience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Children's Happiness

정현정(Jung, Hyun Jung)\* · 문혁준(Moon, Hyuk Jun)\*\*

본 연구는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여 아동의 삶을 이해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배부 설문지 중 누락, 이중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426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결과 행복감의 하위변인인 자아존중감은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인 자기 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행복감의 하위변인인 부모와의 관계와 학교생활은 긍정적 지지에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전반적 생활과 욕구만족에서도 긍정적지지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하위변인 관계적 차원, 인지적 차원 그리고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인 부정적 감정의 인내와 긍정적 지지관계가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부모가 교육적인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며 부모가 기대와 훈육을 덜할 때, 그리고 아동이 부정적인 감정을 잘 견디고 긍정적 지지관계를 가질 때 아동의 행복감이 높았다. 본 연구를 토대로 아동의 행복감을 위하여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 뿐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아동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효율적인 부모교육 및 상담을 위한 자료, 가정과 학교와의 연계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주제어: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행복감

\* 제1저자: 가톨릭대학교 생활문화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가톨릭대학교 아동학 전공 부교수. mhyukj@unitel.co.kr

## I. 서 론

행복이란 인생 보편적이면서 궁극적인 목표이면서 아동기는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즐겁게 잘 살아가기 위해 삶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우리 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볼 수 있으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개인, 가족, 사회는 지나친 경쟁적인 삶의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경쟁적인 삶은 성인뿐 아니라 아동들에게 까지 범위가 넓혀진지 오래되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5437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65.1점으로 OECD 국가(평균 100점) 가운데 꼴찌였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행복과는 거리가 먼 현실을 스스로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아동들이 과연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들의 삶의 질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이제는 물질적 풍요만으로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 만족감, 복지감, 안녕감 등을 측정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백경숙, 변미희, 2002).

'행복'에 대한 심리학적 정의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의는 Diener(1984, 2000)의 개념이다. 그는 주관적 안녕은 자신의 생활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평가이며 이들은 객관적이고 외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 내적인 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이라고 하였고, 행복감이란 삶의 만족, 긍정적 사고방식과 같은 생활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생활감정으로서 만족감, 마음의 평화, 충만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박숙경, 2002). 아동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그 초기 단계에 놓여 있고 주로 인간의 부정적인 정서, 사고 행동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아동이 발달 선상에 있는 존재인 특성을 고려할 때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배경에서 출발한 행복감의 연구들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활발한 연구가 아직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생 1, 2 학년을 대상으로 과거를 추적하고 현재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성적, 사회계층, 학년,

성별, 안정된 가정생활 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선화, 류기영, 김경로, 이경남, 홍봉선, 2000).

성별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는 일관적이지 않다. 성차는 유의미 하지 않았거나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상이하다. 일반적으로는 여자가 남성들보다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지만 전반적인 행복감과 만족감에는 거의 성차가 없다고 본다(Cambell, Converse, Rodgers, 1976; Diener, 1984; Saucer, 1977). 또한 Wood, Rhodes와 Whelan(1989)가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행복하지만 그 차이는 매우 작다고 하였고 Peterson(2006)은 대체로 행복과 성별은 낮은 상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행복감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강영하, 2005; 김연화, 2007; 김희중, 2007; 신명덕). Ryff(1989)는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구성요인들에서 대인관계와 개인적 성장이 여자에게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 남녀의 차이에 대한 결과를 냈다. 또한 김명소 등(2001)의 연구에서도 남녀 간 유의미한 성차를 나타내주어 성차가 행복감을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별이 미치는 영향력이 연구마다 다르므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학년에 따라서는 신명덕(2007)의 연구에서는 학년 올라갈수록 행복한 수준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고 장수한(2002)은 학년이 높을수록 공부에 대한 압력으로 여가생활만족도가 낮았다고 하였다.

오늘날, 기혼여성의 취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은 아동에게 물질적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심리적 욕구충족을 높일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외부로부터 위협한 상황에 놓이거나 심리적인 부적응과 외로움을 경험하여 행복감이 낮아질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취업모의 아동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결과(박현철, 2010), 취업모의 자녀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되었다는 결과(문정현, 2002), 취업유무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김현오, 2008)를 보였다. 이와 같이 아동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행복감은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아동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적 수준 상이상 집단이 자녀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김의철 외, 1998;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건우, 유호식 2000; 구재선, 2005), 경제수준 상이상 집단이 중·하 집단보다 심리적 안녕감을 더 느꼈으며(이현주, 이미나, 최인수, 2008), 청소년의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는 화목한 가족관계 다음으로 경제적 여유가 중요한 변인이었다(김의철, 박영신, 2004; 임미향 외, 2005). 여러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를 보면, 경제 수준은 한국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이 높은 주관적 안녕감, 즉 행복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생산적인 활동과 자발적인 참여, 충분한 사회적 자본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백수현, 2008). 또한 인간은 사회적 지지체계의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을 누리고 긍정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Cohen & Willis, 1985).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자본은 구조와의 관계이다(책무성, 기대감, 신뢰성). 둘째, 사회적 자본은 다른 이와 의 관계를 통하여 개인에게 자원을 제공한다(관계망, 정보 채널과 규범). 셋째, 개인의 목표 성취로써 사회적 자본은 이용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속성을 지닌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자녀의 발달에 대한 부모의 관심, 부모나 지역사회에 의하여 인지되어지는 사회적 규범과 믿음, 부모 외의 가족 내 다른 성인들의 존재 및 그들과의 유대감과 사회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는 신뢰감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근원으로는 가정, 직장, 학교, 동료, 지역사회 문화기관, 종교 단체 등 다양한 영역이 있다. 부모로부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아동에게 가정에 의해서 창출되는 사회적 자본이 일반적으로 다른 자원보다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영향원이 된다. 안우환(2004)은 사회적 자본은 관계의 질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성장시절 풍부한 보무와의 대화, 애정, 사랑 등 가족의 분위기 등은 학생이 장차 가지게 될 사회적 자본의 초석이 되는 교육적 환경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된다고 하였고 이다은(2007)은 가정이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의 장인 동시에 부모와의 만남이 교육의 시작이므로 가정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연구와 고찰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발달과정에서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가족 부모-자녀 관계의 사회적 자본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으로 인하여 자녀가 얻게 되는 자원이라고 정의하겠다. 이에 학교생활과 교육에 대한 관심과 대화, 학교 교육 지원을 위한 활동 참여, 자녀에 대한 기대 등이 있다. 엄은미(2001)의 연구결과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원체계 등이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어릴수록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고 부모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의 지원활동의 중요성은 크다. 최근 학생들의 교육적 성과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김연화, 2007; 박은영, 2005; 이경숙, 2001; 조정희, 1994)들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아동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학교 공부에도 도움이 되어 스스로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

다(조성연 외, 2008). 부모의 학업적 성취 압력이 증가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은 학교 생활 적응 및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이 작용의 여부에 따라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의 행복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모-자녀 사이의 연대라는 관계성에 사회적 자본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을 개별적으로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개인변인 중 자아탄력성은 Rutter(1985)가 환경의 역경과 스트레스적 상황에서 놀랍게 잘 기능하며 스트레스에 지향적인 어린이들을 발견하고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이란 용어를 처음 언급한 이래 널리 사용되고 있다. Block과 Kremen(1996)은 자아탄력성을 환경적 요구에 따라 긴장, 인내, 수준과 충동 통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으로 보고 있다. 자아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불안에 취약하지 않고 세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동참하고 확실히 긍정적 정서를 보이며 우울에도 취약하지 않는 성격적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새롭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며 과제해결을 위해 충동 통제를 잘 조절하는 등의 행동특질을 갖고 있다(김윤희 외, 2003).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 통제를 잘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낙천적이며 대인관계에서도 원만함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행복감과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Veenhoven(1991)은 자신의 일이나 외부의 사건을 자신이 스스로 통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주관적 행복감의 구성요소라고 주장했다. 자아 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내적 통제성이 높으며, 내적통제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덜 느끼며(장운옥, 정서린, 1997), 자신의 생활을 만족스럽게 여긴다고 보고하고 있다(조미환, 임정빈, 1991; 지연경, 조병은, 1991).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자아탄력성과 행복감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특히 그 안에서의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개인변인인 자아탄력성에 따라 행복감이 다른지 고찰하고 상대적 영향력을 각각 규명하여 아동의 삶을 이해하고 아동의 행복한 삶을 돕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 인구학적 배경(아동의 성별, 학년, 모의 취업여부, 경제사정)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행복감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적 배경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

-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자아탄력성과 같은 정의적인 발달이 만 10세 이후부터 형성된다는 근거(Block & Kremen,1996)와 Erikson의 사회 심리 발달 단계 중 아동기(6-11세)는 ‘자아 결정기’라고 하는 이론에 따라 서울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가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배부,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배부 설문지 중 누락, 이중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426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먼저 아동의 성별을 보면, 남아가 207명(48.6%), 여아가 219명(51.4%)으로 나타났으며 비취업모의 아동은 231명(54.2%)으로 취업모의 아동 195명(45.8%)보다 많았다. 아동들이 지각하는 경제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하’ 나 ‘중’이라고 인식하는 아동이 295명(69.2%)이었고, 상이라고 인식하는 아동이 131명(30.8%)이었다.

<표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426)			
	구분	빈도	%
성별	남	207	48.6
	여	219	51.4
학년	5학년	204	47.9
	6학년	222	52.1
부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11	2.6
	대학졸업	287	67.4
	대학원이상	128	30.0
모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31	7.3
	대학졸업	314	73.7
	대학원이상	81	19.0
어머니 직업유무	직업 있음	195	45.8
	직업 없음	231	54.2
경제사정	하,중	295	69.2
	상	131	30.8

## 2. 측정도구

### 1)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안우환(2006)이 개발한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질문지(Parent-Child Relations Social Capital Questionnaire: PCRSCQ)'를 사용하였다. PCRSCQ 는 교육적 관심과 대화 8문항(예 :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학교교육활동 참여 6문항(예: 우리 부모님께서선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을 하신다). 기대와 훈육 9문항(예: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너는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신다.)으로 총 23문항이다. 4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의 사회적 자본의 경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교육적 관심과 대화 .78, 학교교육활동 참여 .70, 부모의 기대와 훈육 .62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80 로 나타났다.

### 2) 자아탄력성

주소영과 이양희(2007)가 개발한 아동용 탄력성척도(RSC)를 사용하였다. RSC는 자기효능감(self-confidence) 8문항, 부정적 감정의 인내 8문항, 긍정적 지지관계 4문항, 통제력 6문항, 자발성 4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자기효능감 .84, 부정적 감정의 인내 .83, 긍정적 지지관계 .64, 통제력 .74, 자발성 .60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신뢰도는 .93로 나타났다.

### 3) 행복감

최혜영, 신혜영, 최미숙, 조성연(2009)이 개발한 한국아동의 행복감척도(HSSKC)를 사용하였다. HSSKC는 자아 존중감 9문항, 부모와의 관계 5문항, 학교생활 4문항, 과외생활 2문항, 전반적 생활 4문항, 욕구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자아 존중감 .83, 부모와의관계 .87, 학교생활 .71, 과외생활 .74, 전반적 생활 .76, 욕구만족 .72 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

해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아동의 성별, 학년, 모 취업여부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행복감의 차이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행복감에 있어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총점 및 하위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면, 부모의 기대와 훈육은 ( $t = 2.71, p < .01$ )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남아( $M = 3.00, SD = .44$ )가 여아( $M = 2.87, SD = .4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자아 탄력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행복감 총점 및 하위요인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학교생활( $t = -2.37,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남아집단( $M=2.99, SD=.66$ )보다 여아집단( $M=3.13, SD=.57$ )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과외생활( $t = -3.05, p < .01$ )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남아( $M = 2.26, SD = .71$ )보다 여아( $M = 2.46, SD = .63$ )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행복감의 차이 (N=426)

성별 변인		남 아	여 아	t
		(N=207) M(SD)	(N=219) M(SD)	
부모-자녀 관계의 사회적자본	교육적 관심과 대화	2.99(.51)	3.00(.49)	-.175
	교육활동참여	2.22(.56)	2.15(.55)	1.2
	부모의 기대와 훈육	3.00(.44)	2.87(.44)	2.71*
	총점	2.50(1.51)	2.67(1.04)	1.43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3.04(.50)	2.99(.49)	1.01
	부정적 감정의 인내	3.02(.53)	2.95(.51)	1.26
	긍정적 지지관계	3.02(.55)	3.07(.54)	-.91
	통제력	3.14(.49)	3.18(.46)	-.89
	자발성	3.07(.55)	3.07(.54)	.05
	총점	3.06(2.56)	3.05(2.11)	.13



성별 변인		남 아	여 아	t
		(N=207) M(SD)	(N=219) M(SD)	
행복감	자아존중감	3.03(.52)	2.97(.49)	1.14
	부모와의 관계	3.27(.70)	3.28(.59)	-.16
	학교생활	2.99(.66)	3.13(.57)	-2.37*
	과외생활	2.26(.71)	2.46(.63)	-3.05**
	전반적생활	2.98(.68)	2.91(.64)	1.19
	육구만족	2.55(.77)	2.59(.65)	-.60
	총점	2.85(2.77)	2.89(2.54)	1.01

\*p<.05, \*\*p<.01

아동의 학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행복감에 있어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학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총점 및 하위요인의 차이를 알아보면 교육적 관심과 대화(t = 2.38, p <.05)와 교육활동 참여(t = 3.35, p <.01)에서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아동의 행복감의 하위요인 중 부모와의 관계(t = 2.12, p <.05)와 학교생활(t = 3.23, p <.01) 그리고 전반적 생활(t = 2.18, p <.05)에서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3> 아동의 학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행복감의 차이 (N=426)

변인	학년	5학년	6학년	t
		(N=204) M(SD)	(N=222) M(SD)	
부모-자녀 관계의 사회적자본	교육적 관심과 대화	3.06(.49)	2.94(.50)	2.38*
	교육활동참여	2.28(.54)	2.01(.56)	3.35**
	부모의 기대와 훈육	2.95(.43)	2.91(.44)	.96
	총점	2.76(2.77)	2.62(2.65)	3.22**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3.01(.49)	3.02(.51)	-.25
	부정적 감정의 인내	2.99(.52)	2.98(.52)	.23
	긍정적 지지관계	3.06(.52)	3.03(.57)	.72
	통제력	3.17(.49)	3.15(.46)	.22
	자발성	3.11(.54)	3.03(.54)	.152
	총점	3.07(2.14)	3.04(2.23)	.60
행복감	자아존중감	3.00(.51)	3.00(.50)	.040
	부모와의 관계	3.34(.59)	3.21(.68)	2.12*
	학교생활	3.16(.60)	2.97(.63)	3.23**
	과외생활	2.41(.68)	2.32(.67)	1.51
	전반적생활	3.02(.64)	2.88(.67)	2.18*
	육구만족	2.57(.71)	2.56(.71)	-.05
	총점	2.92(2.52)	2.82(2.74)	2.18*

\*p<.05, \*\*p<.01

모 취업여부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행복감에 있어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 취업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총점 및 하위요인의 차이를 알아보면 교육적 관심과 대화(  $t = -4.36, p < .001$ )와 교육활동 참여( $t = -4.56, p < .001$ ), 부모의 기대와 훈육( $t = -2.70, p < .01$ )에서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아동의 자아탄력성에서는 하위요인 중 부정적 감정의 인내( $t = 3.01, p < .01$ ), 긍정적 지지관계( $t = -3.39, p < .01$ ), 통제력( $t = -2.46, p < .05$ )에서 모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아동의 행복감은 하위요인 인 자아존중감( $t = 2.08, p < .05$ )과 전반적 생활( $t = -2.45, p < .05$ )에서 모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4> 모 취업 여부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행복감의 차이 (N=426)

변인	취업여부	취업모	비취업모	t
		(N=195) M(SD)	(N=231) M(SD)	
부모-자녀 관계의 사회적 자본	교육적 관심과 대화	2.88(.51)	3.09(.47)	-4.36***
	교육활동참여	2.05(.54)	2.30(.55)	-4.56***
	부모의 기대와 훈육	2.87(.45)	3.00(.42)	-2.70**
	총점	2.6(1.50)	3.13(1.44)	-5.55**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2.97(.48)	3.05(.51)	-1.58
	부정적 감정의 인내	2.90(.50)	3.05(.53)	3.01**
	긍정적 지지관계	2.95(.54)	3.13(.54)	-3.39**
	통제력	3.10(.46)	3.21(.49)	-2.46**
	자발성	3.02(.56)	3.10(.53)	-1.56
	총점	2.99(2.09)	3.11(2.23)	-2.85**
행복감	자아존중감	2.94(.49)	3.04(.51)	.208*
	부모와의 관계	3.22(.69)	3.32(.59)	-1.69
	학교생활	3.02(.62)	3.09(.62)	-1.27
	과외생활	2.33(.68)	2.39(.68)	-.79
	전반적생활	2.86(.67)	3.02(.64)	-2.45*
	욕구만족	2.59(.72)	2.55(.70)	.52
	총점	2.83(2.53)	2.90(2.74)	-1.77

\* $p < .05$ , \*\* $p < .01$ , \*\*\* $p < .001$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행복감에 있어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제 수준을 상집단, 하·중집단으로 나누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경제 수준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총점 및 하위요인의 차이를 알아보면, 교육적 관심과 대화( $t = -5.34, p < .001$ )와 교육활동 참여( $t = -2.09, p < .05$ ), 부모의 기대와 훈육( $t = -2.96, p < .01$ ), 그리고 총점( $t = -4.58, p < .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 $t = -4.02, p < .001$ ), 부정적 감정의 인내( $t = -4.68, p < .001$ ), 긍정적 지지관계( $t = -4.54, p < .001$ ), 통제력( $t = -3.83, p < .001$ ), 자발성( $t = -4.02, p < .001$ ) 그리고 자아탄력성 총점( $t = -5.04, p < .001$ )에서 경제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아동의 행복감의 하위요인 중 자아존중감( $t = -4.34, p < .001$ ), 부모와의 관계( $t = -3.57, p < .001$ ), 전반적 생활( $t = -3.46, p < .05$ ), 욕구만족( $t = -2.26, p < .05$ ) 그리고 행복감 총점( $t = -3.00, p < .01$ )이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5>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행복감의 차이 (N=426)

변인	경제수준	하·중	상	t
		(N=295) M(SD)	(N=131) M(SD)	
부모-자녀 관계의 사회적 자본	교육적 관심과 대화	2.91(.47)	3.18(.51)	-5.34***
	교육활동참여	2.14(.51)	2.28(.69)	-2.09*
	부모의 기대와 훈육	2.90(.41)	3.02(.48)	-2.96**
	총점	2.65(.41)	2.8(.3)	-4.58***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2.95(.48)	3.16(.51)	-4.02***
	부정적 감정의 인내	2.91(.50)	3.16(.52)	-4.68***
	긍정적 지지관계	2.97(.54)	3.22(.52)	-4.54***
	통제력	3.10(.47)	3.29(.48)	-3.83***
	자발성	3.00(.54)	3.22(.51)	-4.02***
	총점	2.99(.21)	3.21(2.12)	-5.04***
행복감	자아존중감	2.93(.49)	3.15(.49)	-4.34***
	부모와의 관계	3.20(.66)	3.44(.56)	-3.57***
	학교생활	3.05(.60)	3.07(.67)	-.24
	과외생활	2.38(.67)	2.32(.69)	.85
	전반적생활	2.87(.66)	3.11(.62)	-3.46**
	욕구만족	2.52(.68)	2.69(.77)	-2.26*
	총점	2.83(2.63)	2.96(2.26)	-3.00**

\* $p < .05$ , \*\* $p < .01$ , \*\*\* $p < .001$

## 2. 사회인구학적변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변인(성별, 모의 취업유무, 경제수준),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을 각각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묶어 차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을 순서대로 투입하여 각 변인의 설명력 변화와 개별 변인들의 영향력 변화를 알아봄으로써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VIF는 5이하 (1.05~3.53)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였다.

<표 6>에 제시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아동의 행복감을 5% 설명하고 있으며, 2단계는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을 추가로 회귀시킨 것으로 1단계에 비해 추가 21%의 추가 설명력을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3단계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추가로 회귀시킨 결과, 설명력은 34%가 추가 되어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델 I의 사회인구학적변인 중 아동의 학년( $\beta=.11, p<.05$ ), 경제수준( $\beta=.17, p<.05$ )이 아동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모델 II에서는 교육적 관심과 대화( $\beta=.49, p<.001$ )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모델 III의 부정적 감정의 인내( $\beta=.30, p<.001$ ), 긍정적 지지관계( $\beta=.39, p<.001$ )가 아동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델 III을 중심으로 아동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개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긍정적 지지관계( $\beta = .38, p<.001$ ), 부정적 감정의 인내( $\beta = .30, p<.01$ ), 부모의 기대와 훈육( $\beta = -.17, p<.001$ ), 교육적 관심과 대화( $\beta =.14, p<.001$ )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사회 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N=426)

		행복감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β	B	β	B	β
사회인구 학적변인	성별	.33	-.06	-.21	-.04	-.13	-.03
	학년	.57	.11*	.25	.05	.40	.08*
	취업유무	.39	-.08	.09	.02	.20	.04
	경제수준	.90	.17**	.25	.05	-.18	-.03
부모-자녀 관계의 사회적자본	교육적 관심과 대화			2.58	.49***	.73	.14**
	교육활동 참여			.20	.04	-.01	-.01
	부모의 기대와 훈육			-.45	-.07	-1.05	-.17***
자아탄력성	자기 효능감					.24	.05
	부정적 감정의 인내					1.52	30***
	긍정적 지지관계					1.83	38***
	통제력					.22	.04
	자발성					.39	.08
	F	5.26***		39.5***		70.6***	
	R <sup>2</sup>	.05		.26		.60	
	R <sup>2</sup> 변화량	.05		.21		.34	
	DW			2.00			

\*p<.05, \*\*p<.01, \*\*\*p<.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행복감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행복감의 차이를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아동의 성별, 학년, 모 취업 여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먼저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 차이를 알아본 결과 총체적인 아동의 행복감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동의 행복감이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강영하, 2005; Hilleras, Agüero, & Winblad, 2001; Ryff, 1989; Wangner, Lloyd, & Gil, 200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여아가 남아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연구(조한숙, 2008; 도미향, 2006; 천윤

회, 2005)와 청소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혜원, 홍미애, 2007; 이은경, 2007; 조명환 등, 1994)가 모두 있어 현존하는 소수의 선행연구만으로 결론을 내리긴 어렵고 일괄된 경향을 파악하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아동의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이 6학년보다 행복감의 하위영역인 부모와의 관계, 학교생활, 전반적 생활에서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5학년이 6학년보다 행복감 점수가 높다는 신명덕(2007)의 연구와 저학년이 고학년에 비해 심리적 복지가 높았다는 도미향(2006)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한다는 채경림(2004)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구자은(2000)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 적응이 낮아졌다는 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높은 학년일수록 과제의 양이 많아지고 시험이나 중학생준비 시기가 되어 내적 긴장이나 스트레스의 영향과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이 행복감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학년별로 나타나는 아이의 신체적·심리적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여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비취업모의 자녀가 '육구만족'을 제외한 행복감의 모든 영역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생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 행복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김현옥, 2008)와 일치하며 취업모 자녀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취업유무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강병기, 1990)와 일치하는 결과로, 취업모가 아동과의 정서적 유대나 대화에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행복감 하위영역에서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생활에서 취업모의 아동이 비취업모 아동보다 행복감을 덜 느낀다는 결과를 보아 취업모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배려가 필요하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경제수준에 따른 행복감을 살펴보았을 때, 경제적 수준이 상인 집단이 하중 집단보다 행복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연구결과(김연화, 2007)와 일치하며,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이 경제적 안정감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을 좀 더 크게 느낀다는 결과(허영선, 2009)와 경제수준이 높다고 지각한 청소년이 심리적 안녕감을 높게 인지한다는 결과(이현주 외, 2008)와 유사한 결과이다. 경제적 수준은 개인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본 요소로 자주 언급되어 왔다(Diener, Lucas & Oishi, 2002). 사회적 자원이 학령기

전 아동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의 경제적 자원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원도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가정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모색되고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자아탄력성이 가장 큰 변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학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낸 김현옥(2008)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에 개인 내적 변인이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정은선, 1997)와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는 요인은 내적 요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김연화, 2007)를 지지한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긍정적 지지관계와 부정적 감정의 인내가 아동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충분히 발휘 되어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잘 대처해 나간다면 행복감을 더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이 한 일에 대해 칭찬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어서 아동으로 하여금 가족을 기댈 수 있는 존재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 아동과의 긍정적 지지관계를 높인다면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충분히 발휘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부모-자녀 관계의 사회적 자본 중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은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대화, 부모의 기대와 훈육으로 나타났다. 부모 자녀간의 사회적 자본이 높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기대와 관심, 열의가 높다는 것으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이정선, 200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관심은 아동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며 이는 아동의 행복감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 가족 내 부모자녀 사이의 원만한 관계, 즉 부모-자녀간의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개인이 사회적 자본을 지각하는 정도가 많을수록 심리적 안녕을 누리고 긍정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Cohen & Wills, 1985). 부모-자녀 관계의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행복감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변인이라는 결과는 부모의 관심과 지지가 아동의 행복감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삶은 학교라는 체계로 진입해 질적인 변화를 맞게 되지만 여전히 아동발달에 있어 가족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아동은 부모를 통해 심리적 적응에 영향 받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심리적 영역에 대해 인정해주고 지지해 줄 때 아동이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으로 부모 변인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개인변인인 자아탄력성만을 다루었으므로 아동의 행복감 전체를 설명하는데 무리가 있다.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인들을 좀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 환경, 연령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환경, 연령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과 자아탄력성 및 행복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의 시각에서 구조화 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기보고식 질문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심층면접을 통한 후속 연구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객관적인 평가가치를 얻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모-자녀의 사회적 자본과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종단 연구를 통하여 부모-자녀의 사회적 자본과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복감에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과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을 위하여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가정과 학교에서는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과 자아탄력성을 높여주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여 아동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며 청소년기를 앞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을 지도하기 위한 효율적인 부모교육 및 상담, 가정과 학교와의 연계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강병기(1990). 자기아동의 사회경제적 수준, 성별, 자보기간에 따른 지능, 성격, 학업 성취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강영하(2005). 초등학생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교육연구**, 5(2), 1-18.
-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 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구재선(2005). 성격, 효능감, 생활경험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 토착심리학적 접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국민일보(2010. 5. 4). 청소년이 매긴 행복점수. <http://news.kukinews.com>에서 2010년 7월10일 인출.
- 김명소, 임지영(2001). 대학생의 “바람직한 삶” 구성요인 및 주관적 안녕감과와의 관계분석 :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83-97
- 김연화(2007). 아동의 성격유형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행복감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윤희, 황순택(2003). 부모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통제신념과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2(2), 343-362.
- 김.의철, 박영신, 곽금주(1998). 한국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요인: 도시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0), 79-101.
-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건우, 유호식(2000).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119-145.
- 김현옥(2010).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이 역량지각 및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현준(2009).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주도적 대처를 매개효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혜원, 홍미애(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정도와 설명요인 분석. **청소년학 연구**, 149(2), 269-297.
- 김혜은(2008).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희중(2007). 긍정심리와 주관적 행복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도미향(2006). 맞벌이 가족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1(3), 77-92.

문선화, 류기영, 김경로, 이경남, 홍봉선(2000). 아동의 삶의 질. **한국아동복지학**, 9(1), 9-49.

문정현(2002).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학교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박선영, 도현심(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229-244.

박숙경(2002). 현실요법을 적용한 행복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박은영(2005). 초등학교생의 과외학습과 삶의 질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박현철(2010).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 및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백경숙, 변미희(2002). 보육관련 변인이 유아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31, 135-152.

백수현(2008). 아동의 일상생활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신명덕(2007).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행복감간의 관계.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안우환(2004).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경북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안우환(2006).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의 측정도구 개발. **초등교육연구**, 19(1), 217-235.

엄은미(2001). 자기표현훈련프로그램이 분노표현, 자기표현,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양정호(2007). 한국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 :KYPS 초등자료 분석. **초등교육연구**, 20(1), 335-353.

이경숙(2001). 초등학교 아동이 인식하는 과외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다은(2007).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가정의 사회적 자본 영향분석.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은경(2007). 청소년의 행복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정신건강 측면을 중심으로. **한**

- 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71-95.
- 이정미(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 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및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정선(2001).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적 관계: 콜만의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4(2), 147-181.
- 이현주 외(2008). 한국 청소년 안녕감 척도(K-WBSA)의 타당화 및 삶의 질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22(1), 301-315.
- 임미향, 박영신, 김의철(2005). 초등학생과 부모의 삶의 질 지각에 대한 토착심리분석. **아동교육**, 14(1), 205-222.
- 장수한(2002). 아동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 **인간환경복지연구**, 2, 195-223
- 장운옥, 정서린(1997). 가정자원도 지각과 통제소제가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6), 141-153.
- 정은선(1997). 성격 및 생애사건과 주관적 안녕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명환, 김정오, 권석만(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31-94.
- 조성연, 신혜영, 최미숙, 최혜영(2008). 한국의 아동은 행복한가? 2008년도 한국 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아동이 행복한 사회, 67-84.
- 조은희(2007). 대안학교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 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정희(1994). 초등학교 아동의 과외수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한숙(2008).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가족의 건강성 및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성차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6(9), 47-60.
- 주소영, 이양희(2007). 아동용 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아동학회**, 28(2), 91-113.
- 지연경, 조병은(1991). 내외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2), 217-240.
- 채경림(2004). 거주지역에 따른 초등학생의 성격특성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천윤희(2005). 초등학교 학생들의 행복과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혜영, 신혜영, 최미숙, 조성연(2009). 한국 아동의 행복감 척도 개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1-19.

- 허영선(2009). 청소년이 지각한 행복감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논문.
-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Cohen, S., & Wills,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01-357.
-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 Sage.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 34-43.
- Diener, E., Lucas, R. E., & Oishi, S.(2002).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Snyder, C. R. & Lopez, S. J.(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orb, A., Little, T. D., Wanner, B., & Wearing A. J.(1996). Adolescents well-being and perceived control across 14 sociocultural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785-795.
- Hilleras, P. K., Agüero-Torres, H., & Winblad, B.(2001). Factors influencing well-being in the elderly.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14, 361-365.
- Hotard, S. R., Mc Fatter, R. M. Mc whirter, R. M., & Stegall, M. E.(1989). Interactive effects of extraversion, neuroticism, and social relationships on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323-331.
- Lin, N.(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 Peterson, C.(2006). *A primer in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utter, M.(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lie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Saucer, W.(1977). Morale of the urban aged :A regression analysis by race. *Journal of Gerontology, 32*, 600-608.
- Veenhoven, R.(1991). Questions on happiness: Classical topics, modern answers, blind spots, In Strack, F., Argyle, M. & Schwarz, N.(Eds.). *Subjective Well-Being, 7-26*, Oxford: Pergamon Press.
- Wagner, E. F., Lloyd, D. A., & Gil, A. G.(2002). Racial/ethnic and sex differences in the incidences and onset age of DSM-IV alcohol use disorder symptom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3(5)*, 609-619.
- Wood, W., R hodes ,N.,& Whelan, M.(1989). Sex differences in positive well-being: A consideration of emotional style and marital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106*, 249-264.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ego-resilience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children's Happiness.

The subjects were 426 5th and 6th grade students living in Seoul. Collected data was subjected to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were :(a) Happiness index was higher in the fifth grade and the higher the economic level.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b) Ego-resilience was deeply related to Children's Happiness.

**Key words** : social capital of parent-child relationship, ego-resilience, happiness

---

2011. 06. 30. 투고 : 2011. 08. 16. 수정원고접수 : 2011. 08. 20. 최종게재결정